

전지훈련 선수단 복직...땅끝 해남의 겨울은 뜨겁다

연인원 3만 5000여명 찾아 34억원 지역경제 유발 효과 기대 따뜻한 기온·맛갈스런 음식·시설 확충·꾸준한 홍보 등 주요

땅끝마을 해남이 동계전지훈련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첫 입성형 성균관대학교 농구팀을 시작으로 해남에서는 2024~2025 동계기간 동안 12종목 210개팀 3000여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인원으로는 3만 5000여명에 이르는 숫자이다.

종목도 다양해 축구 36팀 940여 명을 비롯해 농구 10개팀, 158명, 야구 2개팀, 87명, 펜싱 스토브리그 600명 등 대규모 선수단과 함께 배구, 배드민턴, 철인3종 등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육상 후보선수단과 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단 100여 명이 1월 넷째주까지 훈련을 실시하고, 전국의 체육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육상 선수들이 연달아 해남을 찾아 대한민국 육상의 기대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해남군이 주력 종목으로 유치하고 있는 근대5종 종목도 국가대표 상비군 등 5개팀, 50여 명이 찾아 세계무대에서 맹활약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현재 해남에는 8개 종목 1000여 명의 선수가 해남에 상주하며, 동계 전지훈련 중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또 설 연휴가 끝난 2월부터는 펜싱 종목 스토브리그가 예정돼 있어 당분간 해남 곳곳이 스포츠 선수단으로 북적일 것으로 보인다.

전지훈련팀 유치는 지역경제에도 단비가 되고 있다. 해남군은 이번 시즌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의 방문을 통해 34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주일에서 한달이상 체류하게 되는 선수단은 해남군 관내에 머무르며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해남이 동계전지훈련지로 각광받는 데는 따뜻한

날씨와 맛갈스런 음식, 무엇보다 적극적인 시설 확충과 꾸준한 대외 홍보를 통한 수년간의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은 육상트랙과 천연 잔디구장을 갖춘 우슬경기장, 3면의 축구전용구장, 전국 단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우슬체육관과 동백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영장과 실내육상 트레이닝장 등 각종 체육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적인 육상 지도자로 알려진 일본 주니어 대표팀 전문지도자인 고 마츠 타카시를 초빙하여 육상 후보선수단의 기술지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전지훈련 기간 운영되는 재활캠프는 전문 트레이너 5명이 상주해 수준 높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동계전지훈련을 비롯한 스포츠마케팅은 굴뚝없는 청정산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충과 해남만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전지훈련팀 유치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을 찾은 동계전지훈련 선수단.

진도 한라봉·레드향, 설 명절 앞두고 인기 상한가

당도 높고 과즙 풍부...출하 한창

"올 설 명절은 진도 한라봉이나 레드향 어머신가요?"

진도군은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고품질의 진도 한라봉과 레드향이 제철을 맞아 출하가 한창이라고 20일 밝혔다.

진도 한라봉과 레드향은 속이 빈틈없이 딱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퇴비를 사용해 재배한 저농약 과일로 과즙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감이 좋아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군은 현장 기술 교육을 통해 당도 13브릭스 이상, 일주일 크기 이상의 과일만을 출하하는 등 품질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진도의 한라봉·레드향은 소비자 직거래 등을 통해 3, 5, 10kg 단위로 판매되고 있다. 올해는 32개 농가가 6.9ha에서 150톤을 생산해 약 20억 원의 농가 소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 한라봉과 레드향은 지난 2008년부터 재배가 시작했다. 다른 지역보다 연간 1200시간 정도 일조량이 많고 연평균 기온이 15.8°C로 따뜻한 진도지역의 기후조건으로 인해 난방을 하지 않고도 당도가 높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어서 최근 만감류



진도군 농가에서 한라봉과 레드향 출하작업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품종 우량 모종 지원과 맞춤형 전문기술 자문·재배교육, 무인 방제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 한라봉과 레드향은 청

정지역의 따뜻한 바닷바람, 깨끗한 물과 땅에서 생산돼 한번 맛을 보면 깊은 맛과 향에 꼭 다시 찾게 된다"며 "지속적인 기술 지도와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농업 소득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예향목포연구회' 발대식

"목포 옛 명성 되살리기 매진"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예향목포연구회'가 지난 17일 발대식과 함께 첫 연구모임을 시작했다.

<사진>

목포연구회는 예향 목포의 명성을 되살리고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연구모임과 함께 예술문화 현장 방문이나 공연 관람 등을 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들과 만나 애로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다.

목포연구회는 박수경(회장), 최유란(간사), 문차복, 박창수, 박용준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제12대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예향목포연구회' 발대식 모습.

영광군, 공공비축미 326t 추가 전량 매입



장세일(가운데) 영광군수가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찾아 농업인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영광군이 지역 농가에서 출하하지 못한 보유곡을 추가로 매입한다.

영광군은 기존에 매입한 2024년산 공공비축미 9987t에 더해 각 농가에 보유 중인 잔여 물량을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전량 구매한다고 밝혔다.

추가 구매 물량은 지난해 가을 수확한 건조벼 326t으로 신동진과 새정무 2개 품종이다.

매입 품종 이외 품종을 혼합해 출하하면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 농가 보유곡 전량 추가 구매 추진은 관내 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영광군이 적극 노력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농가에서 불편함 없이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훈련·해양치유...완도군 동계 전지훈련지 각광

39개팀 750여명 찾아 구슬땀

완도군이 해양치유와 연계한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온화한 기후와 쾌적한 자연환경, 다양한 체육시설, 해양치유 프로그램까지 갖춘 완도군 동계훈련지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최근 완도에는 경기도 비룡초교 등 12개 유소년 축구팀을 시작으로 용인예술과학대와 정읍 인상고 야구팀, 안성시청 등 3개 소프트테니스팀, 청주 산남중 등 7개 배드민턴 팀 등 각 종목별 선수단이 동계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종목별로는 축구 22개 팀 550명, 야구 2개 팀 77명, 소프트 테니스 3개 팀 23명, 역도 5개 팀 25명, 배드민턴 7개 팀 79명 등 39개 팀의 750여명

이 완도를 찾았다.

선수들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완도야구장, 소프트 테니스장, 완도중, 고금 축구장, 신지 명사십리 등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완도군은 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차량 지원, 스토브리그 운영, 관광·문화 유적 탐방 프로그램, 관광지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양치유와 연계한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최광운 완도군 체육진흥과장은 "해마다 동계 전지훈련팀이 완도를 찾고 있다"며 "해양치유와 연계해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지도 사육도~증도' 지방도 확·포장 개통

232억원 투입 10년 6개월 공사

신안군은 지도(사육도)와 증도는 잇는 지방도 80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전면 개통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증도~지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연장 3.3km, 왕복2차로 도로신설 사업으로, 2014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0년 6개월 동안 총사업비 232억원이 투입됐다. 기존 도로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도로선형의 기하구조가 부적합해 평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신안군은 이번 도로개통으로 통행시간이 10분에서 4분으로 단축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로통행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도읍 사육도의 지방도 개통은 지역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시, 여행사 홍보마케팅비 300만원 지원

목포시는 지역 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지원' 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여행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개설, SNS 콘텐츠 제작 등)와 오프라인 홍보(신문 광고, 현수

막 등), 홍보 상품 제작 및 판매 마케팅 비용이다.

시는 다음달까지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광업계가 직면한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암군, 음식점 720곳 30만원씩 지급... "민생경제 회복"

영암군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720곳에 공공요금 지원비 30만 원씩을 지급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내수 침체 장기화를 타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큰 타격을 받은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마련됐다.

지원에는 군비와 도비 2억 1600만 원 투입되고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업소다.

신청은 2월 3~28일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등 확인을 거쳐 2월 17일부터 지급한다.

/영암=전병환 기자 jbh@kwangju.co.kr